



### 농림부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

농림부는 가축의 사육밀도 유지, 수질검사, 조사료포 의무 면적 확보, 축사 사이의 일정거리 유지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구체적인 규격을 지정하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기준에 따라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우선 축산업 등록을 한 농장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고 있는 농장만 가능하다.

또한 축산업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 지정기준을 지켜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농림부는 축산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해올 경우 가축관리환경조경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서류 및 농장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축산농장은 현재 HACCP 농장 지정 대상인 소·돼지·닭 농장을 중점으로 하되 앞으로 점차 늘어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게는 축사 가축분뇨의 관리,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 일반 축산농가와 차별화된 정책 지

원을 하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친화축산농장에서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공급할 경우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이상철 과장은 “이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기반을 조성하고, 유기·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정책1’ 119P 참조).

#### 설 대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추진

농림부는 지난 1월 17일 설 명절 연휴(2. 6~2. 10)에 대비 설 성수품인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확정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1. 23~2. 5, 2주간)을 설정하고, 쌀, 사과, 배, 감귤,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 12개 특별관리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중점 관리하며, 농협·산림조합 등을 통해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최고 2배까지 확대하고, 산지출하 및 시장동향을 일일 점검하는 등 현장중심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직거래장터에서 과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염가판매(평균가격에서 5~20% 할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부정농축산물 유통 단속과 출하지도 등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농식품 선물하기’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특별대책기간 이전이라도 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신청

올해부터 농림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에 한부모 조손가정도 포함된다. 농촌지역에 조손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까지의 부모 모두 없는 조손가정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액도 지난해 보다 3%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다니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26만원이, 1세는 22만9천원, 2세 18만9천원, 3세 13만원, 4세 11만7천원 그리고 5세는 16만7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농업인의 만 0세 자녀에게는 월평균 13만원, 1세 11만5천원, 2세 9만5천원, 3세 6만5천원, 4세 5만9천원, 그리고 5세 8만4천원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또한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인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06년부터는 농촌지역에 육아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의 많다는 여론에 따라 농업인의 개인양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를 도입해 각각 운영해 왔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업인의 신청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보육시설 이용과 미이용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만 0세~5세의 자녀를 둔 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이·통장의 농업인 여부 확인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농업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농업인은 연중 한번만 신청하면 되고,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중 시설에 다니게 되는 아동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예산은 총 411억원이고, 월 평균 5만4천명의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연령별 월 지원액 인상내역

(단위 : 원)

연령	보육시설 이용 아동(70%)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5%)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증감
0세	253,000	260,000	7,000	126,000	130,000	4,000
1세	222,000	229,000	7,000	111,000	115,000	4,000
2세	183,000	189,000	6,000	92,000	95,000	3,000
3세	126,000	130,000	4,000	63,000	65,000	2,000
4세	113,000	117,000	4,000	57,000	59,000	2,000
5세	162,000	167,000	5,000	81,000	84,000	3,00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 고시 3종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규정 3종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등 관련고시 3종의 주요 개정내용과 관련, 먼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동물용의약품 사용기준 설정약품은 수의사뿐만 아니라 수산 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허용하였고,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의 경우 제품사용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산용 구충제로 최근 허가된 포르말린의 경우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수산물내 잔류방지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두 번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KVGMP 지정업체의 제조소별, 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상황평가표를 마련하여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KVGMP 업체의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해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 우수제품 생산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세 번째,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과 같이 축·수산물내 잔류우려가 있는 제제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약품의 품목허가 요건을 강화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설정이 가능토록 하고, ▲신약에 해당되는 신물질의 경우 표준품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품목허가와 동시에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동물체내 잔류 및 축·수산식품으로 인한 인체영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학적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안전성 심사요건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최근 전면 개정된 약사법의 개

정사항을 반영했으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조치 사항, 해양수산부 및 동물약품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축·수산물 안전성 확보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하며,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민원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앞장서기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책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일(2008. 1. 27)에 맞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검역원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검역원장은 모든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에 보내는 친서에서 무분별한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동물실험의 신뢰성 제고와 실험동물의 적절한 보호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동시에 이뤄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물의 윤리적 사용 문제는 FTA 등 국제협상 의제로 채택·논의되는 등 새로운 협상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BT산업에 대한 투자연구 확대로 실험동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새로이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SCI 등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논문

으로서 동물실험이 수반되는 경우 실험이 이루어지는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논문심사도 가능해지는 추세이다.

###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교육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3개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교육을 실시했다.

2008년부터 농림부에서는 항생제 내성균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항생제 내성균 조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검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담당자(42명)를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균 검사 방법 표준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 개요’(정석찬 세균과장), ‘동물용 의약품 관리 체계’(홍기성 사무관)에 대한 강의를 있었으며, 또한 가축 및 축산물에 유래 지표세균, 주요 식중독세균, 가축의 병원성세균 등에 대한 분리 방법,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방법 등의 실습교육을 통

해 본 사업 참여 기관간 검사방법의 표준화를 달성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전국 시·도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담당자들이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아울러 전국 검사기관에서의 효율적인 항생제 내성균 조사로 국가차원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본 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가차원의 모니터링 결과는 항생제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정책 추진 효과 평가 등에 활용돼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동물위생연구소 비전 보고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는 지난 1월 22일 축산현장, 대학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역원에서 수행하는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비전 보고회를 가졌다.

동물위생연구소는 ‘고객중심의 핵심수의과학 기술을 선도한다’는 비전 하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우병 등의 국가재난형 질병 예방 대응연구를 강화하며, 현장 및 정책 밀착연구를 확

대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형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주요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그간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은 축산현장에서 질병을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공급하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국가방역에 기여해 왔다. 또한 광우병과 같은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진단 모니터링과 시·도의 전문인력 기술교육을 통해 사전 예찰적인 방역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청정화 유지는 물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양창범 소장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며, 향후 현장 및 정책 지원형 과제의 비율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동물진단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국제표준연구실 인증을 조기에 추진하며, 해외 전염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감시국가 및 질병수를 확대하는 등 축산업은 물론 국민건강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수의과학기술개발이 세계화·현장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적지향성인 연구를 통한 성과활용 강화, 창의적 사고를 가진 전문인력 배양 등 연구활성화 계획과 현장과 정책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관으로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의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 검역검사 통계정보 실시간 공개 서비스 개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역검사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역검사 통계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해 2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검역검사 통계정보 공개서비스는 검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축산물의 수출입 검역검사 실적’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서비스이며, 2007년 2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해 지난 연말 프로그램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금번 검역검사 통계정보시스템은 과거 제한된 통계만을 제공하다가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하도록 했으며 그 범위 또한 확대했다.

기존통계의 경우 수입 주요 식육(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합격, 불합격 실적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시스템으로 모든 동·축산물의 수출입 합격, 불합격 실적 뿐 아니라 불합격 사유까지도 상세히 제공한다.

#### 〈검역검사 통계정보 제공시스템 접속 방법〉

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접속 → 화면상단 NVRQS 업무정보 → 검역검사업무 → 검역검사통계 → 실시간 통계

### 태국산 앵무새·알 불법 반입 여행자 적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인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앵무새·알

등 국내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하려던 여행자를 잇달아 적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조모씨는 지난 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입국하면서 앵무새 등 조류 56마리, 부화용 알 162개 등을 구입해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을 시도했으며, 1월 24일에도 송모씨가 앵무새 14마리, 부화용 알 29개를 밀반입하려다 세관검사를 통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앵무새와 알을 부화시켜 애완용 사육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를 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욱 인천지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앵무새 등 수입금지산 검역대상물건을 반입하는 행위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유발하여 인명과 관련산업 피해 등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외 여행 중 애완조류(앵무새, 알) 등 수입금지물품은 절대로 국내로 반입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인천지원은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지방검찰청과 공조하여 태국 등 동남아국가로부터 밀반입되는 수입금지산 애완조류 등 검역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검역위반 사범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입산 닭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재수) 충남지원(지

원장 이용섭)은 지난 1월 17일 수입산 닭고기 31,043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판매한 대전시 대덕구 소재 업체 대표 김모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씨는 대전시 대덕구 소재 ○○닭집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국내산 닭고기를 판매(유통)하는 자로, 2005년 2월경부터 2007년 11월까지 경남 마산시 소재 ○○종합유통 등 11곳으로부터 수입산 냉동 닭고기 67,682kg을 구입, 이중 31,043kg(싱가 1억2천4백만원 상당)을 해동해 국산과 구별하기 힘들게 절단한 후, 사무실에는 당 업소는 '○○회사에서 생산 공급하는 순수한 국산 닭고기만을 사용합니다'라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운송차량에는 유명 국내 닭고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국산 닭고기만 판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표 ○○닭고기 등으로 표시, 영업을 하면서 대전시 관내 식당 60여 곳에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고,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의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축산과학원

### 최철환 연구관 별세

가금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축산과학원(원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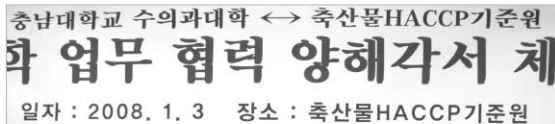
진) 가금과 최철환 연구관이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운명을 달리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철환 연구관은 지난 1월 2일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고 13일 수술을 위해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고인은 지난 1979년 농촌진흥청 종축장에서 공직에 몸을 담은 이래 닭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한국재래닭 복원 연구에 일생을 바쳐왔다.

### 축산물HACCP기준원

####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산학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1월 3일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신상태)과 '축산물 위생 관련 정보의 상호이용 및 협력과 축산물 HACCP에 관한 업무 협조'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축산물HACCP기준원에서 교환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학술, 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교환 ▲위생관리 및 위생검사의 조사연구 사업에 대한 상호 협조 ▲위생관리기법 개발 등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수행 ▲축산물HACCP에 관한 교육관련 업무 협조 ▲기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로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전문적인 축산위생관련 기술연구 및 조사는 물론, 축산물HACCP 교육 실시 시 중부권에 위치한 충남대 수의과대학의 적극적인 도움(시설 및 장비)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맞춤형 교육'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충남대학교 수의학과대학도 기준원과의 HACCP 정보 교류를 통해 HACCP에 대한 학술연구와 실질적인 적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8년 농가소득 4% 증가할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임상규 농림부 장관 등 농업계 인사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08'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망대회는 '한국 농업·농촌,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라는 주제 하에 총 3부로 나눠 개최됐다.

1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도전' 이란 주제로



열렸고, 2부는 '시장 개방의 파고를 넘어서' 라는 주제 하에 16개의 소주제발표가 있었다. 3부는 '산업별 주요 이슈와 전망' 이란 주제 하에 쌀·곡물, 축산물, 과일·야채, 채소·임산물의 산업별 전망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망대회는 인터넷을 통해 실황을 중계하여 실시간으로 농업전망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국제곡물 가격과 유가가 계속 올라 농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낮아진 국경 장벽이 우리 농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전망' 66P 참조).

■ 문의 : (02)3299-4210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 사무실 이전

(사)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김진구)는 지난 1월 동물약품기술연구소의 검사시설을 신설하고, 협회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이전했다.

- 협회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301호
- 기술연구소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601호
- 대표전화 : (031)707-2470
  - 내선번호
    - 협회 : 신형철 전무 111, 김종호 차장 122, 김정아 과장 144, 한봉희 사원 155, 이정은 사원 166
    - 연구소 : 박종명 소장 222, 이혜숙 연구원 133, 강서영, 이은화 연구원 233
- FAX : (031)707-0680

## 농협중앙회

### 새 회장에 최원병씨 당선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에 최원병 후보가 당선됐다.

최원병 후보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총회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전체 유효투표수 1,183표 가운데 52%인 614표를 얻어 569표를 얻은 김병원 후보를 제치고 새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최 회장은 이날부터 향후 4년간 농협중앙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